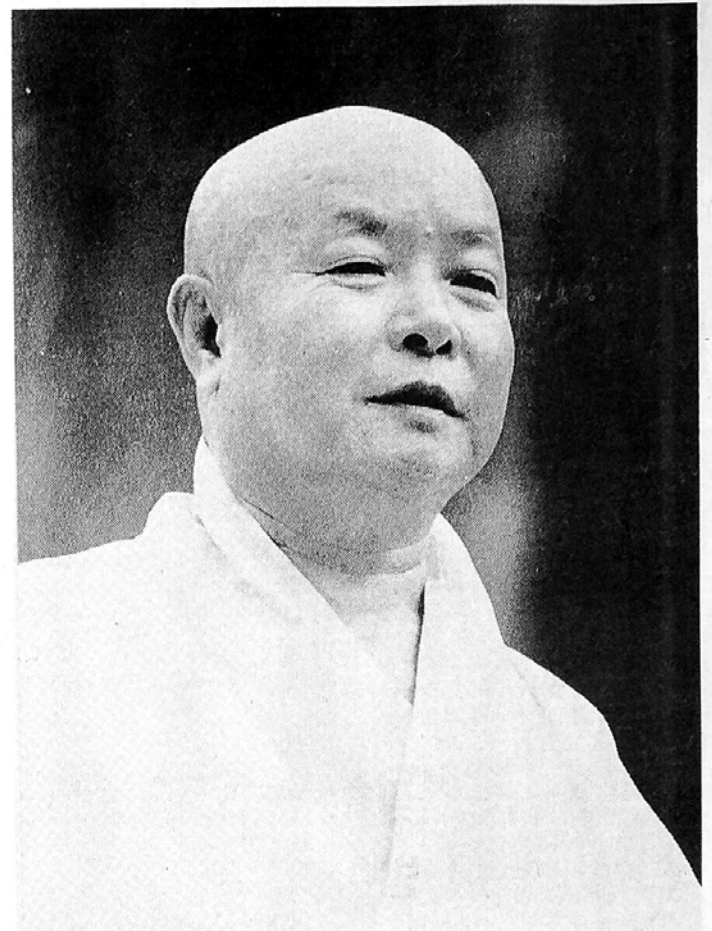


큰 스님 수행한담

“사람과 자연은 한 뿌리



원담스님 <덕숭총림 방장>

“네 마음 고향 어디냐” 만공스님 주신 말씀 아직도 화두

어둠질은 수덕사에 고요함과 함께 새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곳산인 덕숭산에 둘러싸여있는 고풍스러운 수덕사는 백제시대 고찰의 위용을 자랑하며 고즈넉히 서있다. 선본종찰 덕숭총림의 모든 법 나오는 근원이요 끝이라는 서래(西來)가풍을 지탱해주는 것은 바로 방장 원담스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수덕사 일주문을 비껴 돌아 숲길을 따라오르면 새로 지은 방장실이 편안한 자태로 앉아있다. 1933년 12월에 동진출가하여 62년간 수행에 진력해온 원담스님은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다정하게 반겨주었다. ‘어디서 왔는가?’ ‘공양은 했는가?’

와서보니 어린 마음에도 세상에서 제일 살고 싶고 잘사는 사람이 스님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만공(滿空)스님을 뵈고 그대로 출가했습니다.

- 1927년 12월 1일 충남 서천 생
1933년 수덕사에서 벽초스님을 은사로 출가
1970년 수덕사 주지역임
5·7·8대 조계종 총회의원
1989년~현재 수덕사 덕숭총림 방장
현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를 찾는 것만이 평화찾는 길이고 불교의 정법을 찾는 길입니다”

만공스님을 처음 뵈을적에 생각이 나는군요. 머리는 하얀 노만공스님이 “어디서 왔느냐?” 물으세요. “충남 서천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서천의 고향은 어디냐” 또 물어요. 무슨소리지 모르고 “역시 서천입니다” 하니 결결 웃으시며 “내가 묻는 뜻은 네 몸뚱이 생긴 고향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네마음을 생긴 고향이 어디냐를 묻는 것이다”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상당히 뜻이 깊은 말씀인지를 알고 지금까지 화두로 들고 살아왔습니다.

나를 찾아야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를 찾는 것만이 평화를 찾는 길이고, 고향을 찾는 길이고, 불교의 정법을 찾는 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찾는 생각보다는 밖에서 무엇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경허스님께서 주석하시던 天壽寺(천장사)에서 행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혜사에서 공양주·채공을 할적에 하루는 벽초(碧超)스님께서 나를 불러 이르시기를 “만공 스님께서 네 시명을 받고 싶다 하시니 잘 모시기라” 하시더라, 그날로 전월사(轉月寺)에 올라갔습니다. 만공스님을 시봉하게된 인연은 저에게 큰 행운이었지요. 큰스님을 가까이서 모시며 공부하고 싶던 차여서 기쁜 마음에 큰스님을 부처님처럼 모시며 살았어요.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 수행잡자나 불자들이 간혹 찾아와 공부하는 법을 물곤합니다. 그때마다 만법귀일(萬法歸一)의 화두(話頭)를 짚어줬던 옛 생각이 절로 납니다. 예전에 천장사에서부터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어쩌구 하던 것이 금공했는데 하루는 어느 선객스님이 큰스님을 찾아와 화두를 타는데 몹시 금공한지라 부엌에서 일하다 말고 귀를 풍긋세워 들었습니다. 만공스님 하시는 말씀이 “옛날 한 종이 조주화상에게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하나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萬法歸一 歸何處)” 하고 물으니, 하나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는 몰지 않겠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그 하나란 무엇인가(萬法歸一 是甚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객스님이 돌아간후 큰스님 방에 들어가 “저도 이제부터 참선을 할랍니다” 하니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尚의 참선요지 28

甚覺是老用心的難呢
심마시노용심적이니
老用心用道真疑現前的時候
노용심용도진의현전적시후
有覺有照 仍舊生死 無覺無照 又落空亡
유각유조 仍舊生死 무각무조 우락공망
到這地實任難
도지경지실재난
很多到此不立 立在百尺竿頭 沒法進
한다도차세불탈 입재백척간두 불법진
步的
보적

意義
의의
便以坐在枯木岩爲極則
변이좌재죽목암위극칙

또 어떤 이들은 달마조사의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는 깎달리는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마치 정벽 같아야 도에 들수 있다’는 말을 잘못 알고는,

(또) 육조대사의 ‘선도 생각치 말고 아도 생각치 말라. 바로 이러한 때에 어 느 것이 눈 밝은 이의 본래면목인가’ 라는 말뜻 잘못알아서,

문득 나무 등걸이나 바위처럼 앉아있는 것으로 구경을 삼는다.

這種人以化城爲寶所 認地作家鄉
저종인이화성위보소 인이작가향
妻子拋棄 就是到此等死漢
파자소암 취사독차등사한

이같은 종류의 사람들은 그림자성(신기부)을 보공으로 알고 타향을 제 고향으로 여기는 것이니

노파가 암자를 불태운 것도 바로 이

어떤 것이 오래 공부한 이의 어려운 인가.

오래도록 마음공부를 했다는 것은 참된 의정이 현전에 있는 때이다.

깨우침도 있고 비춤도 있다면 그대로 생사에 있음이나 깨우침도 없고 비춤도 없다면 무기공에 빠진 것이다.

이 경지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흔히 여기에 이르면 쇠락한에서 벗어 나지 못해 백척간두에 서서 진일보할 줄 모르게 된다.

有等因爲到了這地 定中發點慧

“더 면밀하게 더 미세하게 공부해야 시절인연 도래하면 참된의정 나와”

유등인위도료저경지 정중발점혜
유등인위도료저경지 정중발점혜
領略古人幾何公案 便放下疑情
령략고인기척공안 변방하의정
自以爲大徹大悟 吟詩作偈
자이위대철대오 음시작계
雖知揚眉 稱善知識 殊不知已爲魔眷
雖知揚眉 稱善知識 殊不知已爲魔眷
순목양미 칭선지식 수부지기위마권

같은 죽은 공부하는 놈들을 꾸짖은 것이었다.

甚覺是老用心的難呢
심마시노용심적이니
到這地只要不滿 不中輟
도지경지지야부만 부중철
綿綿密密做去 綿綿中更綿綿 微細中更
면면밀밀주거 면면중중면밀 미세중중
微細
미세
時節一到 桶底自然打脫
시절일도 통저자연타탈
如或不然 找善知識 抽釘拔楔去
여혹불연 조선지식 추정발설거

어느 것이 오래 공부한 이의 쉬운 인가
이때에 이르면 다만 지만하지 않아야 하고 중간에 걸려치우지 않아야 하며 면면 밀밀하게 지나가되 면밀한 가운데 다시 더 면밀하게, 미세한 가운데 다시 더 미세하게 해나가는 것이다.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통 밑바닥이 저절로 떨어져 나갈 것이니
혹 그렇지 않다면 선지식에 의지해 뜻을 밝고 문설주를 걸어내야 한다.
龍 眼

어떤 이들은 이런 경지에 이르르매 정 가운데서 한 점 지혜를 일으켜

예 사람의 몇몇 공안을 알아채고는 문득 의정을 놓아버리니

스스로 크게 사무쳐 크게 깨달았노라 하며 시를 읊조리고 계승을 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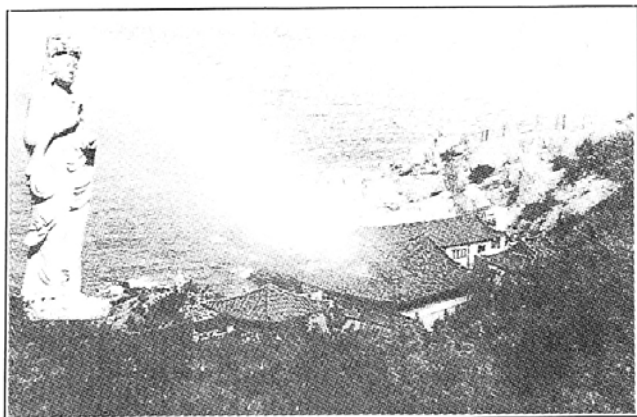
눈을 깜짝이고 눈섭을 치켜 올리며 자칭 선지식이라 하면서 저를 알아주지 않으면 마군의 권속이라 한다.

又有等踏會了達摩老人的
우유등학회료달마노인적
‘外息諸緣 內心無端 心如壁壘 可以
외식제연 내심무단 심여장벽 가이
入道
입도
和六祖的 ‘不思善 不思惡
화육조적 불사선 불사악
正與當時那箇是明上座本來面目’ 的
정여마시나개시명상좌본래면목 직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海水觀音 방생도량

해동용궁사는 뒤는 산이요, 앞은 푸른바다에 펼쳐진 절경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진신(眞身)이 상주하시는 관음기도도량이며 방생도량입니다. 금번 용궁사에서는 관음대불을 봉안하옵고 많은 기적과 불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궁사는 특히 삼사순례나 방생법회를 하시는 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하오니 전국의 주지스님과 신도님께서 방문하시면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입장료 무료
대형주차장 완비
방생물 예약 준비해드립니다
해운대-용궁사 10분 거리



海東龍宮寺 기도영험도량

용궁사 오시는 길 해운대 달맞이길 → 송정 해수욕장 → 용궁사 (051)722-7744, 722-7755

연화합창단 창단 1주년 기념!

해동용궁사 寺歌 현상 공모

기도영험도량 해동용궁사에서는 연화합창단 창단 1주년을 기념하여 용궁사 사가(寺歌)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 응모기간 : 1997년 1월 31일까지
◇ 응 모 처 : 해동용궁사 연화합창단 단장
◇ 응모내용 : 작사가사 1·2 절
◇ 사찰특징 : ● 태백산맥 연화산 ● 배산임수 관음기도도량
● 해수관음대불 ● 아침일출
● 108계단 ● 반월교
◇ 발 표 : 1997년 2월 10일(음 1월 3일) 교계 신문에 공고
◇ 시 상 : 1997년 2월 22일 (정월대보름)
● 당선작 1名 상금 100만원 ● 가작2名 상금 각 30만원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 동 용 궁 사

619-900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416-3
(051)722-7744, 7755 FAX 7333